 DOI: 10.15706/jksms.2023.24.2.016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제 트래블 버블 정책 네트워크 연구*†

윤 소 현(제1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관광원 (석사과정)

구 철 모(교신저자)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vel Bubble Policy Network based on Social Network Analysis

Yoon, So Hyun(First Author)
Smart Tourism Education Platform,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Master's student)

Koo, Chul Mo(Corresponding Author)
College of Hotel & Tourism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scrutinizes the concept of travel bubbles amidst challenging times, with a special focus on the intersection of tourism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e scrutinize the relationship structures, characteristics, and key influencing factors among countries engaged in travel bubble agreements, from a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3073227)

† 본고는 윤소현의 2023년도 석사학위 논문 「A Study of the International Travel Bubble Policy: Applying Social Network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작성한 것임

macro perspective. The findings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a nation's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and tourism competitivenes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ourism policies under crisis circumstances. Additionally, it becomes evident that varianc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geographical features significantly impact the formation of travel bubbles. Interestingly, countries with limited capacities and geographical constraints tend to utilize international alliances and relations to navigate such limitations. The insights gleaned from this research offer a fresh perspective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future tourism policies during challenging times.

Keywords : Travel bubble, Tourism policy, International relations, Social network analysis, Structural equivalence

접수일(2023년 06월 02일), 수정일(2023년 06월 26일), 게재확정일(2023년 06월 26일)

I. 서 론

관광 산업은 세계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Yu et al., 2021; UNWTO, 2018). 202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약 10%가 관광으로부터 기인하며,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이미지 성장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Abbas et al., 2021; Škare et al., 2021). 국제 관광 역시 외화 획득과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며, 국가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Beirman, 2020). 그러나 2020년, 감염위기로 인한 국경 제한과 입국 규제의 강화로 국제 관광산업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Karabulut et al., 2020).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트래블 버블'이 등장하였다(Sun et al., 2022). 트래블 버블은 특정 국가 간의 입국 규제를 완화하여 국제 관광을 재개하는 협정으로, 관광 산업과 국가 경제의 회복을 목표로 실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와 호주 사이에서 체결된 트랜스 타스만 버블은 위기상황에서도 관광 산업과 국가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Manatū Hauora Ministry of Health, n.d.). 이처럼 국가들은 트래블 버블을 시행함으로써 유일한 관광 수입원 및 산업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국가 경제와 사회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World Bank, 2020). 근미래의 유사 위기에도 트래블 버블은 이처럼 국제 관광과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Chen et al., 2022).

그러나 트래블 버블의 산업적,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트래블 버블에 관한 연구

는 제한적인 실정이다(Fusté-Forné & Michael, 2023; Girish et al., 2022). 트래블 버블은 감염률이 낮은 '안전한' 국가 간 체결된다고 알려져 있다(IATA, 2020; Li et al., 2021). 그러나 영국과 인도는 각각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국가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서 큰 피해를 입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Ghosh, 2020; Sian & Smyth, 2022), 다수의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체결하였다(Department for Transport, n.d.; Ministry of Civil Aviation, n.d.; Sharun et al., 2020). 이처럼, 트래블 버블 대상으로 고려할만한 '안전한 국가'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김형종, 2021), 실제로는 국가 감염률과 무관하게 체결되기도 하는 등 트래블 버블의 체결 배경과 영향요인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트래블 버블 체결국 간의 관계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체결 관계 내 주요 행위자, 유사 특징 및 관심사를 도출하여, 트래블 버블 체결의 영향 요인 및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을 활용한다, SNA는 행위자 간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복잡한 관광 정책 관계의 구조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특히, SNA의 구조적 등위성과 CONCOR 분석은 행위자의 행동과 선택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곽기영, 2014),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들 간의 관계 구조와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주요 행위자들과 그들의 유사한 특성 및 관심사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트래블 버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제 관광 산업의 복원 과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국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국제 관광 정책 개발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문헌 연구

2.1 트래블 버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은 특정 국가 간 입국 규제를 완화하여 검역 조치 없이 국제 관광을 가능하게 한 정책으로, Travel Corridor 또는 Travel Bridge로도 알려져 있다(신용석, 2020; Locker, 2020). 2020년, 감염 위기의 확산으로 국제 관광이 급격히 제한되고, 이에 따른 극심한 관광 산업의 침체와 경제 위축이 발생하였다(Lapointe, 2020). 이러한 상황에서 트래블 버블은 국경 폐쇄와 여행 금지 조치, 검역 규제를 완화하며, 국제 관광 이동을 재개하고 관광 산업과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트래블 버블 정책은 체결국 간 엄격한 입국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장려한다. 트래블 버블 협약을 통해 국가들은 양국 간 이동량 증가, 여행 수요 증가, 관광 산업의 재개를 통한 경제 증진을 도모하였다(Fusté-F

orné & Michael, 2023; Girish et al., 2022; Sharun et al., 2020; Yu et al., 2021).

이는 특히 관광 산업이 중요한 국가들에서 트래블 버블 정책은 매우 환영받았다. 트래블 버블을 채택한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World Bank, 2020). 호주 통계국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 4월에 시작된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트래블 버블은 두 국가 간의 관광과 비즈니스 여행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고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1). 또한, Zhang & Lu(2022)의 관광 수요 회복 연구는 관광 수요 예측을 사용하여 여러 관광 시장에서 트래블 버블 정책이 수요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2 관광 정책

관광 정책은 정부의 규제 또는 비규제 절차를 의미하며, 국가는 비규제 관광 정책을 적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추구하고 국가 경제력을 강화하고자 한다(Prideaux, 2005). 사증 면제 협정, 국가 간 교통 협정, 면세 정책 등은 이러한 비규제 정책의 사례로, 관광 흐름 촉진과 국가 경제 개선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증 면제 협정은 국가간 협정을 통해 상대국 입국을 용이하게 하여 국제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흐름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문수, 2015).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연간 69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의 추가적인 관광 지출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Hu, 2013). 또한, 러시아·한국 비자 면제 협정 발효 후, 한국인 관광객의 극동러시아 방문이 크게 증가하였다(최장호 외, 2019). 항공 자유화 협정(Open Sky Agreement)은 국제항공 운행 규제를 완화하여 국경 간 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 수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박종흠 외, 2011; 박진우 & 김미경, 2009; Button, 2009). 이를 증명하며,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 자유화 협정은 항공 운임 하락과 관광 노선 수요 상승의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이원식 외, 2007), 송기한 & 김제철 (2012)은 항공 수요 예측모형을 통해 항공 자유화가 관광객 편의성 제공과 국제 관광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출입국 절차 간소화, 관세 면제 등의 다양한 비규제 관광 정책 또한 관광 산업 활성화와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안영면, 2004; 이성태, 2014; 유지윤, 2003).

2.3 관광 정책과 국제 관계

관광은 국가 간의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Jalalpour & Shojaeifar, 2014). 관광은 국가 간의 이동을 통해 형성되며, 여권 인정, 사증 발급, 국가 간의 교통 운영 등을 위한 외교적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교 및 국제 관계는 관광 정책의 시행을 저지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 비우호적 국제 관계는 관광 정책의 시행을 좌절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관광 운영을 단절시킬 수 있다(Wang & Ap, 2013), 반면 관광 정책에 이해관계국이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때 관광 정책은 시행될 수 있다(Bramwell, 2006). 따라서 관광 정책의 시행에는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와 정책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Bramwell & Sharman, 1999).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광정책 연구자들 또한 관광 정책의 시행에 정책 행위자 간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Lovelock, 2001, Pforr, 2006).

선행연구 내 관광 정책 네트워크는 상호의존적이며 균형적인 관계로 묘사되었다(Agranoff & McGuire, 1999; Innes & Booher, 1999). 반면 실제 정책 네트워크 내 각 행위자는 다른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다(Hall, 1999). 어떤 행위자들은 관계 내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반면 다른 행위자들은 참여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Nohria, 1992; Hall, 1999 재인용). 이와 같은 관광 정책 네트워크 내 국가의 영향력 차이는 관계망 내 행위자의 기회와 제약을 결정하므로, 국가 관광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Bramwell, 2006). 네트워크 내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는 행위자 간의 이해관계, 정치, 경제, 환경적 요인, 행위자의 특성 등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Mandell, 1999; Tyler and Dinan, 2001).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 관광자원에 대한 의존성의 차이가 네트워크 내 영향력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Rhodes, 2018; Rhodes, 2002) 또는, 사회적 평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Pforr, 2006). 따라서 실증적으로 국가, 정치, 경제 및 사회 사이의 복잡한 상호 관계와 패턴을 찾아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성이 강조된다(Ham & Hill 1984; Hall & Jenkins, 2004에서 재인용).

종합적으로, 관광 정책의 시행 및 운영에 국가 간 관계는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 관광 정책은 국내 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정책의 실행은 타국의 협력 의사에 좌우 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관광 정책의 운영을 위해 관광 정책의 이면의 사회적 맥락과 영향 요인에 대한 통찰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2.4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는 행위자 간 연결관계를 분석하는 관계·구조 중심적 분석 방법으로, 이는 기존 통계적 연구 방법론이 놓치기 쉬운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그 특성을 포착하고 전체적인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탁월하다(곽기영, 2014). SNA는 전체적인 구조와 패턴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Scott, 2012), 행위자를 노드(node), 행위자 간 관계를 에지(edge), 그리고 관계 전체를 구조(structure)로 표현함으로써, 다수의 연결관계를 단순하게 시각화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관계를 정량화하여 산술적 계산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연결 관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개체의 역할, 행동, 공통 속성 등을 이해할 수 있다(Borgatti & Everett, 1992).

SNA는 관광 정책 연구에 널리 적용되어 복잡한 상호관계와 맥락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왔다(Tyler & Dinan, 2001; Pforr, 2006). 이는 주로 정책네트워크 내의 정책 행위자들이 누구인지, 그들 사이의 관계와 영향력의 정도, 그리고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구조와 유형을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박양우, 2008). Pforr(2006)는 SNA를 활용하여 호주 노던 준주 관광개발 정책 행위자 간 관계 구조 및 특성를 통해 관광 정책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Dredge(2006)의 관광 정책과 지역 커뮤니티에 관한 사례연구는 구조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중심성, 밀도, 관계 유대의 강도 및 상호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환경적 동인과 맥락을 고려하여 협력이 주요 영향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SNA는 국제 관광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어떠한 환경적 요인이 국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에도 활용되었다. Bai et al. (2021)의 연구는 구조적 등위성을 통해 국제 관광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 그룹과 하위 그룹을 도출하였다. 동유럽, 아시아 태평양, 남아시아 지역이 네트워크 내 중심 군집이며, 중동, 미주, 아프리카 지역은 주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해당 연구는 관광 협력 태도 및 행동 패턴이 유사한 그룹이 지리적으로도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D'Agata et al.(2013) 연구 또한 시칠리아 인근 지역 관광 네트워크를 구조적 동등성에 기반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조적으로 동등한 4개의 목적지 군집이 지리적으로 근접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Seok et al. (2021)의 연구는 국제 관광 네트워크 내 구조적으로 동등한 국가들이 지리, 언어, 문화, 경제, 인구 등의 측면에서 유사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SNA는 복잡한 국제 관광과 관광 정책의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SNA는 트래블 버블 체결국 간의 관계 구조와 특성, 그리고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Ⅲ.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및 가공

본 연구는 국제 트래블 버블 체결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국 정부의 외교, 보건, 관광 및 교통부의 웹사이트 공지와 보고서, 그리고 주요 뉴스 기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코로나-19의 변화에 따라 공식 공지가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변경되는 상황에서, 뉴스 기사를 보충적으로 참조하여 정보의 누락을 최소화하였다. 이 때, 데이터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매체*의 기사를 선정하였다(Franzosi, 1987; Wall, 2005). 또한, 허위 정보 및 오류를 피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발표와 협정 체결이 명시된 기사만을 수집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과 목적, 제약 조건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바탕으로(손동원, 2002), 트래블 버블 참여국 및 연결관계를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스노우볼 샘플링 방법을 적용하였다(곽기영, 2014). 스노우볼 샘플링은 개체 간 연결 관계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숨겨진 구성원 도출에 탁월하다(곽기영, 2014) 현재 트래블 버블의 체결 현황이 구체적으로 조사 된 바 없어 명확한 통계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스노우볼 샘플링을 활용하여 체결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총 161개 지역의 트래블 버블 체결 관계를 확인하였다.

수집한 체결 관계를 가공하기 전, Wasserman & Faust(1994)의 구조적 등위성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관계'의 의미를 정의하는 작업†을 우선 수행하였다. 국제 관광 네트워크에서는 아웃바운드 관광과 인바운드 관광 모두가 관광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므로(이강욱 & 조아라, 2016), '관계'는 방향성이 없는 단순한 연결 유무로 정의하였다. 또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연방 국가(federal)‡의 지방 정부나 자치령 단위§에서 체결된 트래블 버블 또한 국가 단위 분석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연방제의 특성 및 국제법 상 자치권을 보유한 국제 영토(internationalized territory)는 국가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Amoretti & Bermeo, 2004; Benedikter, 2009; Hannum & Lillich, 1980; Maurer, 2000).

최종적으로, 161개국의 트래블 버블 체결관계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매트릭

* CNN, BBC, Bloomberg, New York Times 등 (Wall, 2005)

† '관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분법적인 것인지, 값이나 방향성이 있는 것인지 등 노드 간 연결이 갖는 특정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Wasserman & Faust, 1994).

‡ 본 연구 내 캐나다, 인도, 러시아

§ 본 연구 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인트 바르텔레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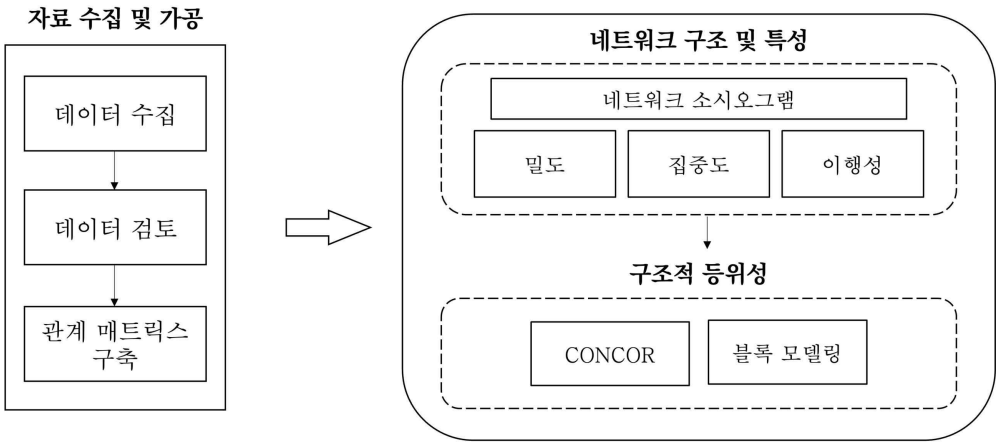
스 구조로 변환하였다.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161개 국가들을 각각 행과 열에 배치하고, 국가 간 트래블 버블 협정이 체결된 경우 '1', 체결되지 않은 경우 '0'으로 단순 체결 여부만을 기입하여 161*161의 행렬 구조를 구축하였다.

3.2 분석 방법 및 절차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은 행위자 간 관계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A와 B 행위자의 관계 패턴이 동일할 경우, 그들은 구조적 등위성을 가진다고 본다(Lorrain & White 1971). 이는 A와 B가 네트워크 내에서 동일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며, 동질적인 태도와 행동,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곽기영, 2014).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구조적 등위성을 갖는 노드들을 군집화하여 네트워크 내의 유사 특성 및 관심사, 주요 행위자 등을 식별한다(D'Agata et al., 2013). CONCOR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으로,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두 노드 간의 관계 패턴의 유사성을 분석한다(손동원, 2002). 분석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 행렬로부터 각 행과 열의 상관 관계를 반복적으로 산출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매트릭스를 생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매트릭스의 각 셀이 +1 또는 −1의 값만을 가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군집 내에 있는 노드들은 구조적으로 등위 관계를 가지게 된다(Borgatti et al., 2013). 블록 모델링은 CONCOR 분석을 통해 분류된 군집을 블록으로 변환하고, 블록 내와 블록 간의 밀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때, 전체 네트워크의 밀도를 기준 값으로 설정하고, 기준에 비해 블록의 밀도 값이 작으면 '0'으로, 크면 '1'으로 표시한다(Knoke & Yang, 2019). 이 방법을 통해 블록 내부(Intra)와 블록 간(Inter)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곽기영,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데이터 가공 단계에서 구축된 트래블 버블 체결 매트릭스를 이용해 각 국가의 연결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소시오그램을 생성하였다. 그 후,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UCINET 프로그램 내 네트워크 구조 측정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 집중도(centralization), 이행성(transitivity)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 CONCOR 분석툴을 이용해 노드 간의 관계 유사성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161개 국가를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CONCOR 분석을 통해 도출된 블록 간 밀도 매트릭스를 전체 트래블 버블 네트워크의 밀도와 비교하여 이미지 매트릭스를 생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블록의 밀도 값이 전체 네트워크 밀도보다 작으면 '0'으로, 크면 '1'로 표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블록 내부 및 블록 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내 관계구조를 직관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 국제 트래블 버블 정책 네트워크 분석 프레임워크



IV. 분석 결과

4.1 네트워크 구조 및 특성 분석 결과

국제 트래블 버블 네트워크 소시오그램인 <그림 2>는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간의 연결 상황과 트래블 버블의 전반적인 연결 구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어 네트워크의 시각적인 이해를 돕는다. <표 1>의 네트워크 구조 지표를 통해 확인한 국제 트래블 버블 네트워크는 다소 느슨한 연결과 특정 국가 중심의 비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트래블 버블 네트워크의 밀도는 0.029로, 트래블 버블 간의 연결이 매우 제한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밀도는 발생 가능한 연결 수 대비 실제 연결 수를 계산한 것으로, 낮은 밀도 지표는 다수와 체결이 가능함에도 소수와 선택적으로 트래블 버블을 체결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는 질병 위기라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상대국의 대응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이행성 지표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가능하다. 이행성은 0.04로, 네트워크 내 상호협력 정도를 나타낸다. 낮은 이행성 지표는 트래블 버블 내 국가들은 국가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구축보다 배타적, 비협조적인 트래블 버블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와의 상호협력보다 소수와 선택적 관계를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중도 지표는 트래블 버블 네트워크 내에서 몇몇 국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며, 0.42로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이는 <그림 2>의 소시오그램을 통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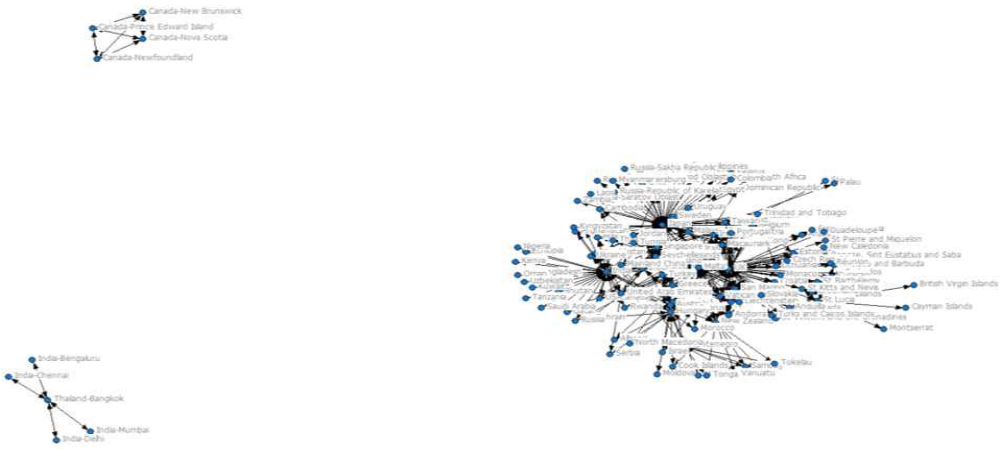
확인 할 수 있다. 특정 국가들이 초국가적 질병 위기 상황에서도 국제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교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들은 위기 관리 및 대응 역량이 높고, 국제관광 경쟁력 및 인프라를 가진 국가일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내 이러한 차이는 발생 배경 및 요인의 복잡성으로 인해, 거시적 관점의 연결 구조 분석만으로는 이해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내의 유사 특징 및 관심사, 주요 행위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구조적 동등성 분석을 통해 세부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측정 지표

측정지표	측정개념*	결과
밀도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	0.029
중심성	네트워크 내 특정 노드의 연결 집중 정도	0.420
이행성	네트워크 내 상호협력 정도	0.040

<그림 2> 국제 트래블 버블 정책 네트워크 소시오그램



* (고재창 외, 2013)

4.1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

CONCOR 분석을 통해, 국제 트래블 버블 네트워크 내에서 유사한 관계와 특성을 가진 국가 집단들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 8개의 그룹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그림 3>의 소시오그램에 나타나있다. 각 그룹 내의 국가들은 트래블 버블 체결 상황, 체결 상대, 지위 등을 공유하며, 네트워크 내에서 공통된 태도와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 별로 소속 국가와 공통 특성은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룹 1과 2는 내부 밀도가 각각 0.08, 0.17로 비교적 높으며, 그룹 간 밀도도 0.10으로 높다. 이는 두 그룹 내의 국가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두 그룹 사이의 연결도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그룹 1은 유럽 및 아시아의 주요 관광 도시들과 뉴질랜드, 호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높은 관광 경쟁력과 방역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그룹 2는 산마리노, 안도라, 몰타 등 유럽의 극소국가들로(micro-state), 국토와 인구 규모가 매우 작다(Eccardt, 2005). 지리학적, 인구학적 제약으로 인해 국가 역량은 낮은 편으로(Bartmann, 2002),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우호적 국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Ayoob, 1986; Wivel & Oest, 2010).

그룹 3과 4는 내부 밀도가 각각 0, 0.06으로 낮지만, 그룹 간 밀도는 0.063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은 각 그룹 내에서는 연결이 적지만, 서로 간에는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두 그룹은 카리브해와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도서국(island country) 및 자치령들로, 국가의 규모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카리브해 공동체, CARICOM(CARIbbean COMmunity)의 회원국*으로, 회원국 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강력한 국제 연합을 기반으로 한다.

그룹 5의 국가들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다양한 국가들로, 관광 산업과 국가 경제의 규모가 작으며 전염병 관리 능력도 높지 않다. 따라서 그룹 5는 이들 국가 간 연결을 구축하기 보다, 국가 방역 및 관광 역량이 높은 그룹 1, 6과 국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택한 것을 <표 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룹 6은 강력한 관광 산업 및 경쟁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보유한 싱가포르, 영국, 태국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높은 위기관리 능력과 관광 경쟁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주도하였다. 그룹 6은 <표 2>를 통해 내부 밀도와 그룹 간 밀도 모두가 높아 트래블 버블 네트워크 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주

*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몬세라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앵귈라,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터크스 케이커스제도,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앤틸리, 푸에르토리코, 아루바 (우양호, 2018)

도 그룹인 그룹 1과 6의 공통점은 높은 국가 역량으로, 트래블 버블 체결 관계 내 국가 간 영향력의 차이는 '국가 역량' 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단, <표 3> 이미지 매트릭스를 통해 두 주도 그룹 사이에도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룹 6의 국가들이 도서국(island country)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룹 1보다 더욱 적극적인 트래블 버블 체결 관계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 7과 8은 내부 밀도가 각각 0.018, 0.072로 낮고, 그룹 간 연결 밀도도 낮다. 그룹 7은 중동, 아프리카, 북미 국가 중에서 정치적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여행 제한이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 8은 주로 소규모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로서, 다양한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갖춘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그룹은 <표 3>의 이미지 매트릭스를 통해 그룹 내부 연결만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의 문헌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그룹 8의 지역들은 지리적 근접성에 기반하여 폴리네시아 일대 내 또는 동일 국가 내의 지방 정부 간 단독적인 관광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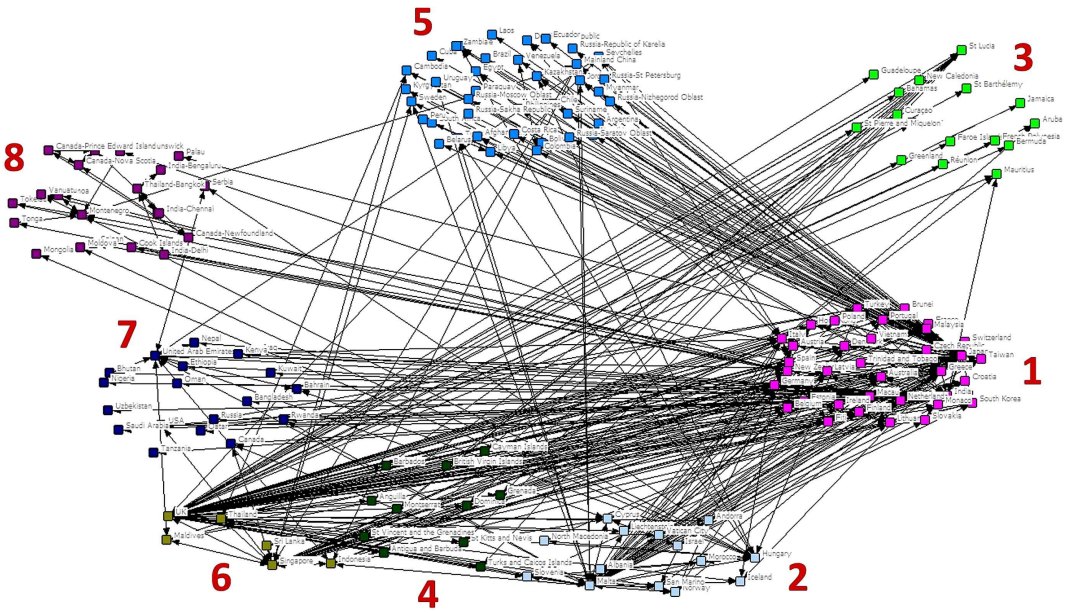
<표 2> 블록 밀도 매트릭스

	B1	B2	B3	B4	B5	B6	B7	B8
B1	0.08	0.10	0.01	0.00	0.04	0.32	0.04	0.01
B2	0.10	0.17	0.00	0.00	0.02	0.16	0.02	0.01
B3	0.01	0.00	0.00	0.00	0.00	0.17	0.00	0.00
B4	0.00	0.00	0.06	0.00	0.00	0.12	0.00	0.00
B5	0.04	0.02	0.00	0.00	0.00	0.03	0.00	0.00
B6	0.32	0.16	0.17	0.12	0.03	0.33	0.04	0.00
B7	0.04	0.02	0.00	0.00	0.00	0.04	0.02	0.00
B8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7

<표 3> 이미지 매트릭스

	B1	B2	B3	B4	B5	B6	B7	B8
B1	1*	1	0	0	1	1	1	0
B2	1	1	0	0	0	1	0	0
B3	0	0	0	1	0	1	0	0
B4	0	0	1	0	0	1	0	0
B5	1	0	0	0	0	1	0	0
B6	1	1	1	1	1	1	1	0
B7	1	0	0	0	0	1	0	0
B8	0	0	0	0	0	0	0	1

<그림 3> CONCOR 분석 결과 소시오그램



<표 4> CONCOR 결과 군집 및 특징

구분	국가†	특징
1	브루나이,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대한민국, 스페인, 스위스, 터키,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홍콩,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그리스, 베트남, 일본, 마카오, 모나코, 폴란드, 대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관광경쟁력 높음 방역역량 높음 국제교류 높음 네트워크 주도
2	슬로베니아, 모로코,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안도라, 키프로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산마리노, 바티칸 시국, 이스라엘, 몰타	극소(micro) 국가 국가역량 낮음 그룹 1과 밀접관계
3	아루바, 모리셔스, 바하마, 퀴라소, 페로 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그린란드, 과들루프, 자메이카, 뉴칼레도니아, 레위니옹, 세인트 바르텔레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피에르 미클롱, 버뮤다	도서(island) 국가 관광경쟁력 높음 카리브해 공동체 그룹 4와 밀접관계

* 기준 값: 0.029 (트래블 버블 네트워크 전체 밀도)
† 161개 국가 및 지역

4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앵귈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터크스 케이코스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몬세라트	도서 국가 관광경쟁력 높음 카리브해 공동체 그룹 3과 밀접관계
5	캄보디아, 스웨덴, 튀니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도미니카 공화국, 세이셸,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본토,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벨라루스, 우루과이, 에콰도르, 쿠바, 콜롬비아, 수리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리비아, 요르단, 코스타리카, 나미비아, 러시아-모스크바 주, 러시아-사라토프 주, 러시아-니제고로드 주, 러시아-카렐리야 공화국, 러시아-사카 공화국,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잠비아, 라오스, 미얀마	관광경쟁력 낮음 방역역량 낮음 그룹 내 약한관계 그룹 1, 6과 밀접관계
6	영국, 인도네시아, 몰디브, 스리랑카, 태국, 싱가포르	도서 국가 관광경쟁력 높음 방역역량 높음 국제교류 높음 네트워크 주도
7	캐나다, 미국,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방글라데시, 부탄, 에티오피아, 이라크, 케냐, 쿠웨이트, 네팔, 나이지리아, 오만, 카타르, 러시아,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여행 제한국 (방역 및 정치 이유) 그룹 간 약한관계
8	사이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몽골, 태국-방콕, 쿡 제도, 니우에, 사모아, 토켈라우, 바누아투, 통가, 팔라우, 캐나다-노바스코샤, 캐나다-뉴브런즈윅, 캐나다-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캐나다-뉴펀들랜드, 인도-뭄바이, 인도-델리, 인도-벵갈루루, 인도-첸나이	국제교류 낮음 그룹 간 관계없음 지역 단독 네트워크

V. 결 론

본 연구는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트래블 버블을 관광 정책과 국제 관계를 결합한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트래블 버블 체결국 간의 관계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트래블 버블 체결의 영향 요인 및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과 관광경쟁력이 중요하며, 국제 관계 구축을 통해 미흡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트래블 버블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징 분석 결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관광 정책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적, 균형적 관계와는 달리, 실제 트래블 버블 정책 네트워크 내 정책 행위자들은 특정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배타적이고 한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감염위기라는 사회•환경적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위기의 확산을 경계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체결 상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활한 국제 관광 운영에 협력이 중요함에도 낮은 이행성 지표를 통해 질병 확산의 우려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래블 버블 정책 네트워크 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국가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관광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국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관리 역량과 관광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국제 관광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관광 정책의 목적인 산업•경제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트래블 버블 네트워크 내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통해, 국가 역량, 국제 관계, 지리적 특성이 트래블 버블 정책 체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내 영향력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국가역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낮은 국가역량 및 지리적 한계를 가진 그룹에서 국제 연합 및 교류를 한계 극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관광 정책 시행에 있어 국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관광 정책과 서비스 경영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관광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는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과 관광경쟁력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서비스 경영의 관점에서 국가 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트래블 버블은 여러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과 연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파트너십이 위기 상황에서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는 서비스 경영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SNA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트래블 버블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는 앞으로의 관광 정책과 서비스 경영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관광정책 및 서비스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트래블 버블 체결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어,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미래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는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기 단계의 연구로서, 여전히 다양한 제한적인 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구는 대규모의 트래블 버블 정책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네트워크 주도 그룹과 비주도그룹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관광 정책의 목적인 관광 활성화와 국

가 경제 제고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본 추출의 일반적인 접근으로부터 오는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생 당시 체결된 트래블 버블 정책 관계를 수집하기 위해 스노우볼 샘플링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추가 관찰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 방향성과 통찰력을 발전시키고, 관광 정책과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문수 (2015), 관광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15-08.

고재창, 조근태, 조윤호 (201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기술경영의 최근 연구동향, *지능정보연구,* 19(2), 101-123.

곽기영 (2014), *소셜네트워크분석,* 제 2 판, 청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0),「출입국관리법」제7조제2항제2호, 법무부.

김형종 (2021), [특집3] 해외의 트래블 버블 추진 현황과 고려사항, *한국교통연구원,* 276, 19-23.

박양우 (2008), 영상관광정책 네트워크 체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2), 295-317.

박종흠, 안승범, 임미순 (2011), 항공자유화가 항공운송시장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교통연구,* 18(2), 13-28.

박진우, 김미경 (2009), 항공자유화의 추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2), 350-358.

손동원 (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송기한, 김제철. (2012), 관광과 항공교통의 융· 복합을 통한 항공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303.

신용석 (2020),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재개 현안과 대응 방향, *한국관광정책,* (82), 70-74.

안영면 (2004), 중국과 한국의 관광정책 비교연구: 출입국 정책 중심으로, *관광연구,* 18(3), 231-246.

우양호 (2018), 카리브해의 해역네트워크와 도서국가의 지역적 통합,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205-232.

유지윤 (2003), *세계 주요국가 관광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강욱, 조아라 (2016), 국민 해외여행의 현안과 정책과제, *한국관광정책,* (65), 10-17.

이성태 (2014), 2015 년 인· 아웃바운드 전망 및 관광시장 환경 분석, *한국관광정책,* (58), 108-115.

이원식, 마경하, 김한성 (2007), 한-중 항공운송자유화의 영향 분석, *항공진흥,* (3), 92-108.

최장호, 허재철, 이정균, 최유정, 임소정 (2019),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통일연구원

Abbas, J., Mubeen, R., Iorember, P. T., Raza, S. and Mamirkulova, G. (2021), Explor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ourism: transformational potential and implications for a sustainable recovery of the travel and leisure industry, *Current Research in Behavioral Sciences,* 2, 100033.

About Air Transport Bubbles, (2022.09.18.), Ministry of Civil Aviation. https://www.civilaviation.gov.in/en/about-air-transport-bubbles

Agranoff, R. and McGuire, M. (1999), Expanding intergovernmental management's hidden dimension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9(4), 352-369.

Amoretti, U. M. and Bermeo, N. G. (2004), *Federalism and territorial cleavages,* JHU Pres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1), Short-term travel increases in April following NZ travel bubbl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yoob, M. (1986), *Regional security in the Third World* (1st ed.), London: Groom Helm.

Bai, J., Chen, Y. and Long, Y. (2021), The structural equivalence of tourism cooperative network 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rea, *Environmental Research,* 197, 111043.

Bartmann, B. (2002), Meeting the needs of microstate security, *The Round Table,* 91(365), 361-374.

Beirman, D. (2020), *Restoring tourism destinations in crisis: A strategic marketing approach,* Routledge.

Benedikter, T. (2009), *The world's modern autonomy systems: Concepts and experiences of regional territorial autonomy,* EURAC Research.

Borgatti, S. P. and Everett, M. G. (1992), Notions of position in social network analysis, *Sociological Methodology*, 22, 1-35.

Borgatti, S. P., Everett, M. G. and Johnson, J. C. (2013), Analyzing Social Networks, *The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39(3), 221-222.

Bramwell, B. (2006), Actors, networks and tourism policies, *In Tourism Management Dynamics,* Routledge.

Bramwell, B. and Sharman, A. (1999), Collaboration in local tourism

policymak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92−415.

Button, K. (2009), The impact of US-EU "Open Skies"agreement on airline market structures and airline networks,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15(2), 59−71.

Chen, J., Becken, S. and Stantic, B. (2022), Travel bubbles to maintain safe space for international travel during crisis-emotions reflected in Twitter posts, *Current Issues in Tourism*, 26, 1−15.

COVID−19: Border controls, (2022.09.30.), Manatū Hauora Ministry of Health. https://www.health.govt.nz/

D'Agata, R., Gozzo, S. and Tomaselli, V. (2013), Network analysis approach to map tourism mobility, *Quality & Quantity*, 47, 3167−3184.

Dredge, D. (2006), Policy networks and the local organisation of tourism, *Tourism Management,* 27(2), 269−280.

Eccardt, T. M. (2005), *Secrets of the Seven Smallest States of Europe: Andorra, Liechtenstein, Luxembourg, Malta, Monaco, San Marino, and Vatican City,* Hippocrene Books.

Franzosi, R. (1987), The press as a source of socio−historical data: issues in the methodology of data collection from newspapers, *Historical Methods: A Journal of Quantitative and Interdisciplinary History,* 20(1), 5−16.

Fusté−Forné, F. and Michael, N. (2023), Limited tourism: Travel bubbles for a sustainable futur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31(1), 73−90.

Ghosh, J. (2020), A critique of the India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Industrial and Business Economics,* 47(3), 519−53.

Girish, V. G., Ko, M., Lee, C., Suess, C. and Park, Y. (2022), Examining behavioural intentions to visit travel bubble destina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urrent Issues in Tourism*, 1−16.

Hall, C. M. (1999), Rethinking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A Public Policy Perspectiv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7(3−4), 274−289.

Hall, C. M. and Jenkins, J. (2004), Tourism and public policy, *In A Companion to Tourism,* Wiley.

Hannum, H. and Lillich, R. B. (1980), The concept of autonomy in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4(4), 858−889.

Hu, X. (2013), Economic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visa waiver program-A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 *Global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7(1), 81-89.

Innes, J. E. and Booher, D. E. (1999), Consensus building and complex adaptive systems: A framework for evaluating collaborative plann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5(4), 412-423.

Jalalpour, S. and Shojaeifar, J. (2014), The tourism industry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Journal of Environmental Biosciences,* 6, 68-72.

Karabulut, G., Bilgin, M. H., Demir, E. and Doker, A. C. (2020), How pandemics affect tourism: International evid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84, 102991.

Knoke, D. and Yang, S. (2019), *Social network analysis,* SAGE publications.

Lapointe, D. (2020), Reconnecting tourism after COVID-19: The paradox of alterity in tourism areas, *Tourism Geographies*, 22(3), 633-638.

Li, S., Zhou, Y., Kundu, T. and Zhang, F. (2021), Impact of entry restriction policies o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connectivity during COVID-19 pandemic,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152, 102411.

Lorrain, F. and White, H. C. (1971), Structural equivalence of individuals in social networks, *The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1(1), 49-80.

Lovelock, B. (2001), Interorganisational relations in the protected area-tourism policy domain: The influence of macro-economic policy, *Current Issues in Tourism*, 4(2-4), 253-274.

Locker, M. (2020), Five Things to Know About Travel Bubbles, Smithsonian Ma gazine, (May,28). https://www.smithsonianmag.com/travel/five-things-know-about-travel-bubbles-180974983/

Mandell, M. P. (1999), Community collaborations: Working through network structures, *Review of Policy Research*, 16(1), 42-64.

Maurer, B. (2000), *Recharting the Caribbean: land, law, and citizenship in the British Virgin Island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forr, C. (2006), Tourism policy in the making: An Australian network stud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1), 87-108.

Prideaux, B. (2005). Factors affecting bilateral tourism flow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3), 780−801.

Rhodes, R. A. (2002), *Beyond Westminster & Whitehall,* Routledge.

Rhodes, R. A. (2018),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Routledge.

Scott, J. (2012), *What is social network analysis?* Bloomsbury Academic.

Seok, H., Barnett, G. A. and Nam, Y. (2021),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international tourism flow, *Quality & Quantity,* 55(2), 419−439.

Sharun, K., Tiwari, R., Natesan, S., Yatoo, M. I., Malik, Y. S. and Dhama, K. (2020), International trav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mplications and risks associated with 'travel bubbles', *Journal of Travel Medicine,* 27(8), taaa184.

Sian, S. and Smyth, S. (2022), Supreme emergencies and public accountability: The case of procurement in the UK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35(1), 146−157.

Škare, M., Soriano, D. R. and Porada−Rochoń, M. (2021), Impact of COVID−19 on the travel and tourism industry,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63, 120469.

Sun, X., Wandelt, S. and Zhang, A. (2022), Travel bubbles in air transportation: Myth or reality? *Aerospace,* 9(1), 38.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2020), Annual Review 2020,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Travel corridors, (2023.03.27.), UK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travel−corridors

Tyler, D. and Dinan, C. (2001), The role of interested groups in England's emerging tourism policy network, *Current Issues in Tourism,* 4(2−4), 210−252.

UNWTO (2018), Tourism and culture synergies, UNWTO

Wall, M. (2005), 'Blogs of war' Weblogs as news. Journalism, 6(2), 153−172.

Wang, D. and Ap, J. (2013), Factors affecting tourism policy implementa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a case study in China, *Tourism Management,* 36, 221−233.

Wasserman, S. and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vel, A. and Oest, K. (2010), Security, profit or shadow of the past? Explaining the security strategies of microstates.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3(3), 429-453.

World Bank (2020), How could the Pacific restore international travel? World Bank.

Yu, J., Lin, H., Lo, Y., Tseng, K. and Hsu, C. (2021), Is the travel bubble under COVID-19 a feasible idea or not?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1), 5717.

Zhang, H. and Lu, J. (2022), Forecasting hotel room demand amid COVID-19, *Tourism Economics,* 28(1), 200-221.

* 저자소개 *

· 윤 소 현(sona.s.yoon@gmail.com)

현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관광원에서 관광학전공으로 석사 과정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Tourism Data Analytics, Smart Tourism이다.

· 구 철 모(chulmo@khu.ac.kr)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50편이 넘는 SSCI급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요 강의 및 연구 분야는 스마트관광, 로봇과 인공지능, AR&VR 등이다.